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석형 함평군수

"나비·곤충엑스포 박차"

"정해년은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토대를 닦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함께하는 열린군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정성어린 사회복지의 기치아래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관광 군으로의 기반을 다지는데 열정을 쏟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함평군의 올 군정 핵심은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차질 없는 준비로 귀결된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산·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나비·곤충 클러스터 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나비·곤충마을 육성 및 벤처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외국어 타운' 운영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외국어 교육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군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상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어 타운이 운영된다.

명문고 육성도 필수 과제다. 명문고 및 특성화 학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 여건이 열악해 인구가 빠져 나가는 악순환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군수 복안이다.

지역화합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자는 '글로벌 추임새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개방에 대비하는 보완책도 마련한다. 비싼 가격에 향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3천700ha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110ha 조성이 대표적 시책이다. 지력증진 사업으로 땅심을 돋우고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센터)시설 현대화로 나비쌀 브랜드를 단일품종으로 차별화, 함평 쌀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비쌀 명품화 추진

전국적 명품 브랜드로 명성을 더하고 있는 '함평천지 한우'의 입식을 늘리고 혈통보존과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친환경 한우촌 조성으로 축산업 진흥에도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함평은 이미 나비 축제를 통해 생태체험관광 메카로서 국내 입지를 굳힌지 오래다. 이제 세계적 생태체험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08 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과 전시장의 순조로운 공사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대다수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군수는 지난해 국내는 물론 호주와 일본 등 각지를 돌며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에 바쁜 활동을 벌였다. 새해에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해외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친환경 한우촌 조성

올해로 9번째 열리는 나비축제는 지역 문화가 반영되고 민간참여가 늘어나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돌머리 갯벌체험,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 등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고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5천300여명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자활 지원사업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군 이어 보성군도

각종 지역행사 군수 참석 줄인다

단체장 예산 확보·기업 투자유치 전념케

전남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민선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지역내 행사 참석을 대폭 줄이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각종 행사 참석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으로 예산 확보 및 기업 투자유치에 나서기 위한 것.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군수행사 참석 지침까지 마련했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군수 행사참석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와 군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를 비롯해 군민화합을 위한 주요 행사,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 행사에만 군수가 참석할 수 있다.

반면 각종 일상적 행사와 회의, 읍·면단위 체육행사 등은 실·과·소장이 참석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 등 마을단위 행사 참석은 읍·면장 몫이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취임이후 하루 평균 3~4건의 공식행사 참석과 10여명의 민원상담은 물론 토, 일요일에도 비공식행사에 참석해 왔다.

군은 연간 1천여건에 이르는 군수 참석행사를 대폭 줄임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대외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각종 행사 참석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흥군수는 중앙 및 도 주최 행사를 비롯해 군 주관 대규모 행사, 사회단체 주관 시책토론회, 세미나 등에만 참석할 수 있다.

또실·과·소장은 소규모 행사나 회의, 읍·면민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고 마을 경로잔치나 노인정 등 마을복지시설 준공식은 읍·면장이 참석토록 규정돼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고흥=대성수기자 dss@

고품질 과일생산 과수 가지치기 교육 화순군이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 3개반 15명으로 기술지원단을 편성, 읍·면을 돌며 가지치기 등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암 실내 게이트볼장 건설

영암 공설운동장 부지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들어선다.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내 게이트볼장은 건평 881.6㎡ 규모로 오는 3월말 준공 예정이다.

한편 영암군 게이트볼협회는 올해 10여차례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일본 게이트볼 단체와 교류경기도 추진하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나주소방서 '안전 체험장' 운영

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가 어린이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서 4층에 '소방안전 교육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안전 체험장은 118평 규모로 소방장비 및 사진 306점이 전시된 전시실을 비롯 탈출 체험실, 소방시설 실습실로 꾸며져 있다. 문의 (061) 330-0833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강진군 '황금 닭' 명품화 한다

올 20만마리 생산… 백화점 연계 판로 확대

강진군이 한약재인 황금(黃芩)을 넣은 사료로 키우는 '황금 닭' 대량 사육에 나선다 〈사진〉

군은 올해 황금 닭 20만마리 생산을 목표로 이미 작목반 구성을 마쳤으며 다음달 본격 입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사육장 설치와 병아리 입식 등에 2억원을 지원하고 백화점과 연계, 판로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황금이 포함된 사료를 투여, 닭 3천여마리를 사육한 결과 성장률과 폐사율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외형도 윤기가 있는 등 일반 닭과의 구별이 가능하며 육질 또한 기름기가 적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황금닭을 명품 닭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며 연관된 한약재 재배와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나주, '장애인 교통 도우미단' 운영

택시업계와 협약 월 5만원 도우미 수당 지급

나주지역 중증 장애인들의 바깥 나들이와 병원 방문 등을 도와줄 전국 최초의 '교통 도우미단'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25일까지 관내 택시업계와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에서 교통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중증 장애인 1천여명 가운데 교통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은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가장 편리하게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는 도우미와 연결시켜 준다. 시는 또 장애인들의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 교통 도우미에 대한 응급처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새 얼 굴 /

"농지 규모화사업 중점 추진"

박석윤 농촌공사 영암지사장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박석윤(57)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장은 "농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 규모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영암 군서 출신인 박 지사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뒤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총무부장, 무안·신안지사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의순(54)씨와 1남1녀가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